

# 생태교육으로 살아난 마을 자연환경

### 광주환경운동연합, '평촌마을 열두 달 자연놀이' 펴내 '반딧불이 되살리기' 등 5년 간의 자연회복 활동 담아

"자연환경 훼손하지 않기, 동네 어른들 보면 인사하기, 전기제품 사용하지 않기"  
 '평촌마을'의 생태 체험을 하기 위해 모인 아이들이 스스로 세운 '안전 모둠 규칙'이다.  
 무등산 국립공원의 9번째 명품마을인 '평촌마을'에 반딧불이를 되살리는 등의 지난 5년간 자연회복 활동 내용이 담긴 책자가 나왔다.

자연환경 복원활동 뿐 아니라 아이들과 주민들이 함께한 생태교육의 생생한 현장 활동 내용도 같이 담겼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최근 평촌마을,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와 공동으로 '평촌마을 열두 달 자연놀이' 책자를 펴냈다고 밝혔다.

광주시 북구 충효동의 평촌마을은 무등산 국립공원 마을로 동북쪽의 가장 끝자락에 자리하고 있으며 광주 중심지에서 20여분 거리다. 무등산에서 시작되는 가장 큰 하천인 증암천이 마을 앞으로 흐르고, 뒤로는 무등산 자락인 금산이 두르고 있는 전형적인 산마을이다.

닭피, 동림, 우성, 담안 등 4개의 자연마을이 모여 하나의 마을을 형성하고 마을 앞으로는 평무들이 펼쳐져 있어 농사 짓기도 좋은 곳이다. 주민들은 대부분 쌀 농사를 짓고 축산, 허브, 무등산 수박 등 복합농업 형태로 생계를 꾸리고 있다.

주민들과 함께 환경단체는 무등산 국립공원 숲길에서 야생동물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고, 하천에 사는 피라미의 색깔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평촌마을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

마을 주민들은 화학비료와 농약 대신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를 지어 자연 환경 복원에 앞장섰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와 광주환경운동연합은 마을의 숲과 하천에 사는 생물 변화를 모니터링 하고, 아이들과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등 생태교육 내용을 발굴했다.

이번에 발간한 책자에서는 평촌마을의 다양한 생물이 있는 자연놀이 공간과 이곳을 찾는 아이들의 놀이 활동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지난 2010년부터 평촌마을 주민들이 친환경 농

법과 환경 지키기 운동을 시작하면서, 도심 속에서는 보기 어려운 다양한 생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평촌마을에서 광주호 호수생태원까지 펼쳐진 넓은 평모들에서는 한때 멸종위기종이었던 긴꼬리투구새우를 관찰할 수 있다. 마을주민들이 친환경 우렁이농법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눈에는 3억 5000만년 전 화석시대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긴꼬리투구새우와 풍년새우가 나타났다.

멸종위기야생생물이자 천연기념물인 남생이도 평촌 농로길에서 만날 수 있다. 번식기인 6월 풍암천 근처 수풀에서 쉽게 찾을 수 있으며 물살이 약한 곳에서 기다리면 숨을 쉬기 위해 나오는 남생이를 볼 수 있다.

마을 냇가인 풍암천을 비롯해 곳곳에서 다슬기를 쉽게 관찰할 수 있다. 반딧불이의 먹이인 다슬기는 2010년 마을 전체가 농사를 친환경 농법으로 짓기 시작하면서 늘어나기 시작했고, 반딧불이도 다시 나타났다.

다양한 생물과 자연 환경을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는 놀이공간과 프로그램도 준비되었다.

무등길 쉼터에서 반디누리길을 따라 10분정도 걷다보면 '숲 놀이터'가 나온다. 이곳에는 마을주민들이 2016년에 조성한 반딧불이터와 해먹들이



있다. 이 밭속에 오르거나 해먹에 누워 평모들과 광주호의 넓은 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동화 속의 장소처럼, 팽나무 위에 만든 '트리 하우스'도 있다. 2015년 충효분교 학부모들이 팽나무 위에 만든 집으로, 캠핑을 하거나 별을 보며 동화책 읽기와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여름이면 아이들을 위한 '반딧불이 연구소'도 문을 연다. 마을주민들이 반딧불이를 키우며 애벌레와 성충을 모니터링 하는 공간으로, 아이들이 반딧불이를 보고 관찰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평촌마을에는 사계절 내내 아이들과 가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추수가 끝난 논에서 주민들이 준비한 볏짚을 이용해 만든 공을 던지며 뛰어놀 수 있다. 볏짚의 줄기와 잎을 이용해 볏짚 인형을 만들 수도 있다. 남은 지푸라기를 모아 짚뿔 딱이를 딱기도 하고 새끼줄을 만드는 법도 배운다. 겨울철에는 풍광 언논 위에서 썰매를 타거나 스케이트를 탈 수도 있다.

책자는 광주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http://gj.ekfem.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볼 수 있으며, 평촌마을 무등길 쉼터에서 배포한다.

/전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 겨울철새 111종 143만마리...전년비 17% 증가

### 조류독감 전파 가능성 높은 오리과 조류 18%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남에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올 겨울철 전국에서 활동하는 철새는 111종에 143만마리로 확인됐다.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이 '겨울철 조류 전국 동시 총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1월부터 3일간 전국 주요 철새 도래지 2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겨울 철새 수는 전월보다 약 72%(60만마리) 증가했고 지난해 11월보다 약 17%(21만마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가능성이 높은 오리과 조류(오리·기러기·고니류)는 전월보다 약 97%(54만마리), 지난해 11월보다 약 18% (17만마리) 증가했다.

환경부는 오리과 조류의 이동과 분포현황 등 조사결과를 관계기관에 공유하는 한편, 내년 1월까지 겨울 철새가 유입될 것으로 보고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 예방을 위한 대응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전국 철새 도래 경향을 파악해 고병원

성 AI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매달 겨울철 조류 동시 총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많은 철새가 국내에 도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환경부는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경각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예찰 강화 및 방역상황 점검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국민께서는 될 수 있으면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방문할 때 소독 및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폐사체 발견 시 즉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신고(062-949-4367)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전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 남구, 2023년도 장애인 일자리 231개 제공

### 특수교육 연계형, 일반·복지형

광주시 남구가 장애인들의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한다.

남구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소득보장을 위해 내년에 장애인들에게 일자리 231개를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231개 일자리는 두가지 종류로 민간업체에 위탁해 진행하는 특수교육 복지 연계형 및 특화형 일자리 46개와 구청에서 직접 수행하는 일반·복지형 일자리 185개다.

자치구에서 직접 수행하는 일반·복지형 일자리는 ▲주 5일 40시간 근무하는 '전일제 일자리' (43개) ▲주 20시간 일하는 '시간제 일자리' (35개) ▲주 14시간 이내로 간단한 환경 정리 및 급식 보조 등의 역할을 하는 '참여형 일자리' (107개)로 제공된다.

민간위탁을 통한 일자리는 특수교육 복지 연계

형 일자리(9개)와 특화형 일자리(37개)로 특수교육 복지 연계형 일자리는 2023년도 기준 특수학교 전공과 학생을 위한 사업으로 도서관 사서 및 우편분류 등의 업무(주 14시간 이내에 근무하는 조건)를 하게 된다.

특화형 일자리는 만 18세 이상 미취업 지적 장애인 또는 자폐성 장애인을 위한 것으로, 주 5일 25시간 이내 범위에서 요양보호사 보조 역할을 맡게 된다.

남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일자리에 참여하고 싶은 관내 장애인은 남구청 홈페이지 및 남구 장애인복지과에 문의하면 된다. 민간위탁 분야 일자리는 수행기관 선정이 끝난 뒤 참여자 모집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장애인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하면서 자립 생활의 근간을 마련하고 자아 만족감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행기 기자 hyunki@kwangju.co.kr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남구 장애인 정책포럼'

장애인들의 일자리 연계를 통한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최근 광주 남구 장애인복지관에서 '남구 장애인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새로운 장애인 일자리 등을 구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장애인, 장애인시설 및 단체,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권희숙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역본부 취업지원부장, 황현철 광주시 광산구 장애인복지관장, 이재식 광주시 장애인복지아연합 회장 등이 모여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안했다.

권희숙 취업지원부장은 지난 2007년 중증장애인이 공단을 통해 사업체 직무개발을 한 뒤 장애인 체육선수로 18명이 취업한 사례를 들려 장애인 일자리 방향성을 제시했다.

"장애인의 무고용"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업들이 의무고용을 하기 보다는 별금을

내는 쪽을 택한다는 것이다.  
 권 부장은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선 모범사례들이 빨리 생겨야 한다"며 "문화예술과 체육분야에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늘어나고 새로운 사례들이 출현하고 있어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재식 회장은 "지난 2020년 자료를 분석해보면 아직도 장애인 취업률은 34.9%로 전체 인구 취업률의 절반 수준이다"면서 "장애와 빈곤의 악순환을 끊고 동등한 인격체로서 사회적 지위를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 장애인들이 각자 직업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이어 "광주의 지역 특성에 맞는 장애인 일자리가 필요하다"면서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장애인 스스로 권리를 만들어가는 역할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행기 기자 hyunki@kwangju.co.kr

## 남구청소년수련관 '플라스틱 순환 장난감 작품전시회'

광주남구청소년수련관은 지난 26일 '플라스틱 순환 장난감 업사이클링 작품전시회'를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

전시회에선 2021년부터 진행된 '플라스틱 순환 장난감 업사이클링'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버려지는 장난감을 활용해 만든 작품들을 선보였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만 9세-18세)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장난감 부속 해체, 장난감 업사이클링, 플라스틱 팝아트 등 기후환경과 업사이클링을 연계한 활동으로 꾸려졌다. 장난감 업사이클링 교육 6회, 장난감 분해봉사활동 5회 등 활동에 총 150여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했다.

이날은 크리스마스트리와 눈사람을 버려진 장난감 부품을 활용해 작품을 만들고, 공기정화식물 화분꾸미기 체험도 진행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의료 과소비!

일부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는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바람직한 의료이용! 실손의료보험 수호의 시작입니다!